



#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12월


선교편지 제 96 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어느덧 2016년 12월입니다. 앞만보고 달려 왔던 여느때와 달리 잠시 호흡을 고르며 지나온 신앙 여정을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굽이 굽이마다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신앙의 Keyword'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 갑니다. 아마도 정도와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거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라는 단어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회개', '기도', '성령 충만'과 '말씀' 이라는 Keyword도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단어들입니다. 물론 항상 '은혜 충만'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말씀 충만' 하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굴곡이 있는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익숙한 단어들이 때마다 내 삶을 사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라는 단어가 저희의 모든 삶을 사로 잡아, 지금 이곳 선교지에까지 이르도록 한것을 기억하니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마치 만능 열쇠처럼 되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장엄한 섭리가 '선교'를 통하여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을 드러서 이 일에 쓰임 받음이 제 삶의 최고의 의미임을 매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Keyword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가까이 있었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허탈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부름받고, 구별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에 선교적인 주체가 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고 몸이 되신 '교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듣고, 익숙한 '교회' 라는 단어이지만, 막상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 끝에서 주님이 불드시는 주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룬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디고스 예일 교회'가 창립된지 두 번째로 맞이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의자를 동원하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것도 참으로 감사했지만, 예배 순서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새 교우들의 '간증'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 순서를 위해서 사전에 간증 대상자에게 3분 정도의 원고를 기도하면서 미리 작성하게 하고 당일 발표하도록 했었는데, 막상 간증을 시작하자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예상 시간을 훨씬 초과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만 디고스 예일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간증을 통하여 교인 모두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디고스 예일 교회의 3년차를 시작하는 2017년을 바라보며, 감격적인 제 1대 '서리 집사'를 임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서리 집사의 자격 조건을 논하자면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한 기준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집사의 자격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로 강력한 내규(?)를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말씀 전체가 아닌 마치 '사전' 처럼 이곳, 저곳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상식이나 세례식에 참여한 교인들에게는 현지

어로된 친구약 성경을 선물로 주어 왔지만,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을 생활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1독'을 위한 '성경책 렌탈' 프로그램을 실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즉, 성경책이 없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대여해 주어서 집에서 읽도록 하고, 완독을 하면 푸짐한 시상과 함께 대여한 성경책을 개인이 소유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일 예배가 시작하기 1시간 전, 기대와 부담(?) 가운데 전교인이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 1독'을 위한 교육과 실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 장학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열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학생 83명 중에서 디고스가 아닌 다바오에서 신학교에 재학중인 20명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61명이 모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특별하신 사랑과 후원을 통해서 대학에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장학생들을 대신하여, 그동안 힘을 다하여 장학 사역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이 늦었지만, 그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 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23)**



이안 데이브



레이디비



진



그레이스



김



라울



지본



사라



아밀린



로델



그레첸



페비



안젤라



딤플



마리안



케터린



리넷



네젤린



아이리시



로젤린



알준



마이린



버논



하젤



그레이스



로젤린



니콜



메시데타



바네사



데이지



미셸



조이



제레마이아



클레어



로나





마저리



제넬린



커어스틴



조이스



쥬디안



하젤



젤리카



체리쉬



허니진



엔젤



크리스



쥬비



제인



켄



잭



제로우



로스



제사메이



세실



메리



그레이스



아이린



로다



쥬비



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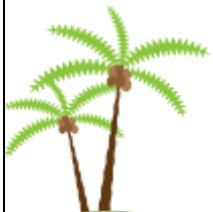
존



레진



레스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